

# 희경루에 스민 '청명'...봄 절기 체험 한자리

내일 전통문화관 무등풍류던 행사

취타대 대취타 연주부터 국악 동화구연까지  
'새싹보리 화분심기' '죽필쓰기' 등 활동 다채

맑아진 하늘과 따뜻해진 땅 위로 봄기운이 완연해지는 절기 '청명'을 맞아 전통문화와 놀이가 어우러진 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희경루 일대에서 '2026 무등풍류던 in 희경루' 2회차 프로그램 '희경의 봄, 청명(淸明)'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봄 절기 '청명'의 의미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통예술과 체험을 결합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익히고, 절기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청명'은 하늘이 맑아지고 만물이 새롭게 움트는 시기로, 계절의 전환과 생명의 기운을 상징한다. 광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 공간인 희경루에서 시민들이 절기의 의미와 봄의 생명력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 취타대 행렬로 시작된다. 대취타 연

주와 전통행렬이 희경루 잔디마당을 가로지르며 봄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 희경루 누각에서는 국악 동화구연 '남생이와 신비한 나무'가 두 차례 진행된다. 청명의 의미를 담은 전래 이야기를 가야금과 장구 선율에 맞춰 들려주는 프로그램이다. 국악동화구연은 사전예약과 현장 접수를 병행한다.

다양한 연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절기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새싹보리 화분심기와 화전 만들기를 비롯해, 광주시 무형유산 기능보유자 필장 문상호와 함께하는 죽필 써보기, 소목 장 조종과 함께하는 목공 대패 체험이 마된다. 체험은 오후 2시10분부터 총 4회 진행되며, 오후 1시30분부터 각 부스에서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참여 인원은 프로그램별로 제한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오후 4시20분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절기 골든벨'이 열린다. 국악동화구연과 절기 체험을 통해 익힌 내용을 퀴즈로 풀어보는 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절기문화를 익히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삼행시 백일장', '민속놀이 체험', '희경루 해설 투어' 등 부대행사도 운영된다.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광주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통문화관 홈페이지(<https://www.gtc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지난 2월 희경루 대보름 잔치 행사에서 열린 '강강술래' 모습



## 장단 위 피어난 '국악의 향연'

내일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 무대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4일 오후 3시 진악당에서 국악연주단의 '국악의 향연'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새집을 짓고 난 뒤 집안의 평화를 비는 성주국 장단인 '푸살(사진)' 무대를 시작으로, 놀부 집에서 쫓겨난 흥보에게 부자가 될 집터를 잡아주는 도승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흥보가 중 '집터 잡는 대목'을 선보인다.

이어 모란꽃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모습을 표현한 궁중무용 '가인전목단'을 비롯해 '서용석류 대금산조', 단옷날 그네 뛰는 정경을 노래한 남도민요 '휘여능창'과 '추천단오늘이'가 차례로 이어진다.

이날 공연의 대미는 영남, 호남, 중부지역 농악에서 비롯된 사물놀이 '삼도농악가락'으로 마무리된다.

공연은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장악과(061-540-4042)로 문의, /최명진 기자

## 同人선생의 易經 강좌

<제53강> 12. 천지비(天地否) 下

비괘(否卦) 구사의 효사는 '유명무구, 주리지'(有命无咎, 畴離祉). 즉 '하늘의 명이 있어 허물이 없다. 무리들이 하늘이 내리는 복을 만난다'는 뜻이다.

사효의 때는 이미 비색의 하괘를 벗어나 희망찬 태의 길로 들어서 서광이 비치기 시작한다. 구사는 음위에 양효로 비색한 세상을 구원하려는 양강(陽剛)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나 음위에 있기 때문에 때를 만나야 하는데 다행히 하늘로부터 유명(有命)이었다.



구사는 비색의 하괘를 벗어나 이제 비로소 태평한 세상의 태(泰)에 한발 들어가 있다. 비(否)의 정점을 바로 넘어섰다. '유명'(有命)은 하늘의 천명, '주'(畴)는 무리, 천구, '지'(祉)는 하늘이 내리는 복, '리'(離)는 떨어지다. 만나다, 붙는다는 의미다.

구사는 비중의 태의 시작으로서 군위(君位)쪽의 중요한 위치에 있어 군을 위해 노력하니 허물이 없다(无咎)는 것이다. 구사의 군을 위한 노력은 자신의 혼자만의 복이 아니라 아래 동료들에게도 미치고 이제 천지가 교차해서 뜻이 통해 원하는 것을 행하고 얻을 수 있는 조짐이 오는 때다. 이를 단전과 상전에서는 '천명을 받아 허물이 없다는 것은 뜻이 실행될 수 있음을 말한다'고 해 '유명무구 지행야'(有命无咎 志行也)라고 말한다.

이때는 천명을 받는 때이므로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좋은 운이 잠시 오고 다시 힘들어질 수 있으니 좋은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더불어 내 짝, 동료가 복을 받는다.

점사에서 득괘해 비괘 구사<<각주=하락이수(河洛理數), 세운(世運)에서 구사를 만나면, 벼슬한 자는 동료가 힘을 도와서 벼슬의 록이 날로 더해진다(則朋助功力而爵祿日加/즉 동료조력 이적록일가). 선비는 남의 천거를 득해서 명예가 날로 나타난다(則得人薦擢而名譽日隆/즉 득인천거 이명예일자). 서속은 전업이 날로 더하고 길경이 많이 모인다(則田業日增 而吉慶多集/즉 전업일증 이길경다집). 혹 자손을 두둔해서 보살피며 복을 멀리서 받는다(或庇孫子孫而受福祉之遺/혹 비자손 이수복지지원)>>를 얻으면, 이제 비운(悲運)의 기로를 넘어 일이 술술 풀리고 천명을 받아 서광(曙光)을 내뿜을 시기가 됐으니 이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 비괘 중에서는 가장 좋은 때이다.

구사는 아랫사람의 장점과 능력을 파악해 이끌어아하는 위치로 구오를 설득해 하층부를 도와야 한다. 따라서 사업, 지망, 취직, 전업 등은 오랫동안 어려웠던 상황에서 이제 서광이 보이나니 나서면 길하고 희망이 보이며 동료들과 함께 하면 좋다.

혼인은 서두르면 어렵지만 하늘의 명(命)이 있으니 가까운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이 있다. 양태는 쌍생아(孿)일 수 있고 남아(男兒, 大長)를 순산한다. 기다리는 사람과 가솔인은 친구나 타인과 함께(曷) 오고 분실물은 책장이나 신반 등 높은 곳에 있으며 아직은 집안(大長)에 있다. 병은 부위로 가슴이나 등뼈 통증, 변괘가 대간(大長)으로 결핵에 의한 골절질환, 대간은 코나 비위에 해당하니 호흡곤란, 비위쇠퇴 등으로 점점 깊어져가 위험하다.

'선거 당선, 시험 합격 여하' 등 묻는 '실점예'에서 구사를 얻으면, 비괘 중에서 가장 좋은 시기로 천명을 받았으나 당선이고 합격으로 판단해 그러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안되는 절호의 기회이다.

구오의 효사는 '휴비, 대인 길, 기망기망 계우포상'(休否 大人吉, 其亡其亡 繫于苞桑)이다. 즉 '막힌 것이 멈추니 대인이 리면 길하다. '이러면 망할까 저러면 망하지 않을까'하고 근심 걱정이 많으나 망하지는 않는다. 불안하면 그 마음을 뿌리가 깊고 줄기가 짙긴 견고한 뽕나무(苞桑)에 단단히 붙들어 묶어 두라'는 의미이다.



오효는 강건중정의 덕을 갖춘 군주로서 비색을 타개할 수 있다. 이를 휴비(休否)라 했는데 이는 잠깐 멈춰있다는 뜻으로 완전히 비색의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근심하면서 경계하라는 것이다.

지금은 비괘가 잠시 멈추는 때여서 일이 풀리는데(休否) 이때 방심하고 경계를 늦추면 일이 틀어져 버림을 경계하고 있는 효사가 계우포상(繫于苞桑)이다.

구오는 강건중정(剛健中正)의 효로서 비(否)의 주괘 중의 주효다. 그래서 비괘의 막혀 있음을 풀 수 있다. 그러나 비괘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 막히는 것이 멈춰 잠시 풀리는 것이니 마음을 놓지 마라는 의미에서 '기망기망'(其亡其亡)이라는 경계의 말이 있는 것이다.

또한 잠시 풀리고 해결되는 시기이니 안심하지 말고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계우포상'(繫于苞桑)이라 해 말고빠를 뿌리가 견고하고 줄기와 꺾질이 짙긴 뽕나무에 묶어 두라고 훈계한다.

상전에서는 '대인이 길함을 자리가 정당하고 지위가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해 '대인지길 위정당야'(大人之吉 位正當也)라고 말한다. 이때는 말 그대로 말할 듯 말 듯, 겨우 살고 있는 현실로 답답하고 힘든 시기이니 잘 참아야 한다.

서속을 들어 비괘 구오<<각주=하락이수(河洛理數), 세운(世運)에서 구오를 얻으면, 목은 화는 이미 가고, 새로운 복이 정착 될 것이며 나를 거리는 자는 몰라가고 존경하고 겸손한 자는 이름한다(舊禍去 新福將來 忌我者退 尚遜者名/구하이거 신복장래 기아자퇴 상신자명). 집에 거처함이 이롭고 전원이 늘어나서 상미는 축하고 창고는 실하다(利居家 進田園 桑麻定而倉廩實/이거가 전전원 상미축이창림실. 진오효로 변하면 근심자는 기쁘게 되고 실한 자는 득한다(田變爲菑五 有憂者喜矣/차변위진오 유우자희의 실자득의). 벼슬한 자는 반드시 정위의 대부지위에 거한다(必居正位大夫之位/필거정위대부지임). 수홍자는 손실되고 망해 형극한다(數凶者 有損亡刑魁/수홍자 유손망형극)>>를 얻으면 지금까지 좋지 않았던 상황이 점점 좋아진다.

좋은 운을 타고 하고자 하는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만일 각고의 고민을 하지 않고 행운을 기다리기만 하면 모처럼 갱생(更生)의 행운을 잃기 쉽다.

타인으로부터 어떤 일의 권유를 받았을 때에는 상당한 위협이 있는지 충분한 주의와 노력이 없다면 수포가 돼 버린다. 긴장을 풀지 말고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업, 지망, 취직, 전업 등은 상당한 활기를 띠고 희망이 있는 때이나 안심하면 위기에 빠지거나 물거품이 돼 버리므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혼인과 양태는 열심히 힘쓰면 이뤄질 전망이 보인다. 기다리는 사람과 가솔인은 늦게라도 돌아오고 분실물도 찾는다. 병은 가슴속 열병, 눈병, 전염성 소화기병 등이고 병세는 본괘가 유혼괘(遊魂卦)로서 상당히 위험해 생사(生死)의 기로에

서 있다. '실점예'로 '모인이 30만냥을 주식에 투자하고자 향후 전망 여하'를 문점하자 육변서(六變筮)로 득괘해 '천지비(天地否)' 오·상효가 동해 뇌지에(雷地豫)를 얻고 다음과 같이 점 고했다.



비괘(否卦)의 상괘 건천이 진리로 변해 주식에 대한 투자 욕구가 강하다. 그러나 건천의 삼양(三陽)이 일양(一陽)만을 남겨 두고 이양(二陰)은 이음(二陰)으로 변했으니 투자한 30만냥 중 20만냥을 잃게 되고, 변괘의 상이 상괘 진리 장부가 하괘 곤지 고향으로 쓸쓸히 낙향하는 상(※각주=이는 상(象)의 변화를 중시하는 육변서 점에서 본괘에서 지괘로 변화하는 상의 모습을 그대로 해석한 것이다)이니 투자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했으나 결국 투자해 이러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 점예에서 동효인 비괘 구오와 상구의 효사에서는 휴비(休否), 경비(傾否)라 했으니 비괘의 막힘과 비색함이 풀리는 좋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실패했다.

상의 변화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판단해야 할 사항은 삼양 중에 이양이 없어진 것이 바로 눈에 띄는 판단의 급수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기 판단의 정삼(定三)으로 보아 본괘는 미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괘는 미래의 미래를 알려주고 있음을 추찰할 수 있어야 한다.

비괘 상구의 효사는 '경비, 선비후희(傾否 先否後喜)다. 즉 '막히는 비색함이 기운다. 먼저는 막히고 나중에는 기쁨이 있다'는 뜻이다.



상효는 비색의 마지막 단계다. 양강(陽剛)의 상구가 구오의 군주를 도와 드디어 난국을 극복한다. 이제 비괘가 상효에 이르렀으니, 즉 비극태(否極泰)해 비색함이 드디어 그치고 비괘에서 탈출하는 기운이 강해 다음 열 세번 째 천화동인(天火同人)의 기운이 보이는 때이다. 선비후희(先否後喜)의 효사처럼, 먼저는 막혀 있지만 나중에는 기쁨이 있어 길하다는 것이다.

상전에서는 '꼭 막혔던 상황이 종국에 이르면 반드시 무너지니 어찌 오래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해 '비중경경 하가장야'(否終則傾 何可長也)라고 말한다. 이때는 먼저는 막혀 있지만 나중에는 좋다. 전반기는 안 좋고 후반기부터 풀린다. 천지비 이후의 운이 천화동인괘가 오므로 그동안 답답하고 힘들었던 시기는 다 없어지니 기쁘지 않을 수 없다.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날이 오니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득괘해 비괘 상구<<각주=하락이수(河洛理數), 세운(世運)에서 상구를 얻으면, 벼슬한 자 중에서 실직자는 복직되고 한직에 있던 자는 보직이 회복된다(失職者復職 閑缺者復補/실직자복직 한결자복보). 선비는 정지나 강등됐던 자는 다시 취하고 오랫동안 송사하던 자는 몰려 흐르리니(久困者利達 久訟者解散/구곤자달 구송자해산). 수홍자는 해괘 상효로 변하면 탄식해 눈물, 콧물의 탄사가 있고 수산해 오래하기 힘들다(數凶者難 亨上 有吝嗟涕淚之辭 壽算難久/수

홍자변 해상효 유자차체이지사 수산난구/총 탄식할자, 涕 눈물체, 洩 콧물이)를 얻으면 지금까지의 고생이 보상 받을 때가 됐고 변해 택지혜(澤地萃)가 돼 '혜'는 '재물과 사람이 모인다'는 뜻이니 노력의 결실이 열려 일과 사람들이 모여든다. 또한 앞서면 더욱 막히고(先否)뒤에서 추진하면 성공해 기쁨(後喜)이 있는 때이다. 따라서 사업, 지망, 취업, 전업 등은 지금까지의 노력과 시행착오가 쓸모가 있고 공을 이루며 사람과 재물이 많이 모인다.

혼인은 잠시 중단됐던 혼사가 다시 이야기가 진행돼 이뤄지고 양태는 변괘의 곤포괘(坤包卦) 안에 손풍 장녀로 무사하다. 기다리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고 가솔인은 변화한 상가 등으로 나갔으며 분실물은 여러 물건이 모여 있는 곳에 숨겨 있어 좀처럼 찾기 어렵다. 변괘에서 나신상(裸身象)이 보여 목욕탕 같은 곳에서 분실했다고도 볼 수 있다. 병은 두통, 식욕부진, 토사(吐瀉), 울렁거림, 호흡기 질환 등이고, 속히 치료하지 않으면 공동묘지에 사람과 재물이 모여있는 묘비의 상이니 결국 악화돼 위독하다.

'실점예'로 '춘추전국시대 제1의 책사(策士)인 소진(蘇秦) <<※각주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유제, 전략가로서 정의(張儀)와 함께 귀국(魏)을 선생의 제자. 진(秦)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연제(燕)와 함께 귀국(魏)이 연합해야 한다는 합종책(合縱策)을 주장해 이름을 날렸다>>이 '진(秦)나 아래 대항하기 위한 주변 여섯 나라의 합종책의 성공 여하'를 알기 위해 유제차 출발하기 전에 입사해 '천지비(天地否) 상효가 동해 비지혜(否之萃)'를 얻었다. 비괘 상효에 '경비(傾否) 선비후희(先否後喜)'라 했고 변괘인 혜괘는 재물과 사람이 모이니 연(燕)나라를 비롯한 여섯 나라의 설득에 성공했고 마침내 여섯 나라의 재상이 됐다.



'연예인의 길을 가고자 하는 모 젊은이의 미래 성공 여하'를 육변서로 입사해 오·상효가 동해 '비지혜'(否之豫)를 얻은 '실점예'에서 점고하기를, '본괘가 천지비괘로 현재는 운세가 막혀 비색하니 그 모습이 달이 구름 속에 숨어있고 겨울 추위 속의 양무새가 봄을 기다리는 상이다. 변괘인 뇌지예괘의 상괘 건은 하괘 땅을 뚫고 솟아 오르는 용이 울트림하는 모습이고 정지된 행동이 점차 풀리어 순조롭게 나아가는 상의(象意)가 있는 것으로 보아, 머지않은 장래에 지상에 분출한 뇌성벽력(雷聲霹靂)처럼 온 세상에 이름이 울려 퍼질 것이다.

또한 진은 소리나는 음악, 방송, 스피커, TV, 마이크 등과도 인연이 있어 틀림없이 TV, 라디오 등에서 이름과 많은 노래 등이 세상 사람들에게 회자(膾炙)되면서 일부 최고의 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역시 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는 등, 점단(占斷)한 바와 같았다.

### 【동인선생 강좌개설안내(062-654-4272)】

- 개설과목(2): 명리사주학, 역경(매주토, 일요일)
- 기초이론부터 최고수준까지 직업전문기양성

